

삼성전자 16GB LPDDR5 모바일 D램 세계최초 양산

눈 깜짝할 새... 영화 9편 1초면 '끝'

(44GB)

8GB LPDDR4X보다 성능 30% ↑
역대 최고 속도·최대 용량 경신
스마트폰게임 콘솔 수준 퍼포먼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이 또 다시 역대 최고 속도·최대 용량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게이밍 PC 이상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성능 '16기가바이트(GB) LPDDR5(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 5)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지난해 7월 12GB LPDDR5 모바일 D램에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업계를 주도한 성과다.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역대 최고 속도와 최대 용량을 구현하는 초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존 8GB LPDDR4X보다 성능은 약 30% 향상됐고 소비전력은 20% 이상 줄었다. 16GB 모바일 D램 패키지는 2세대 10나노급(1y) 12Gb 칩 8개와 8Gb 칩 4개를



16GB LPDDR5 모바일 D램.

/삼성전자

탑재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LPDDR4X, 4266Mb/s)보다 약 1.3배 빠른 5550Mb/s의 속도를 구현해 풀HD급 영화(5GB) 9편 용량인 44GB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서바이벌 슈팅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을 더 빠르게 보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콘솔 게임 수준의 성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8K급 UHD 초고해상도의 미러링 가상현실(VR) 게임을 할 때도 선명한 화질로 캐릭터를 움직

일 수 있어 더욱 실감 나는 영상을 즐기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16GB LPDDR5 패키지 양산을 통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선점뿐 아니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라인업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라인업'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가 오는 26일 실속형 대화면 스마트폰 LG Q51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LG Q51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 전자

LG전자, 30만원대 실속형 스마트폰 출시

6.5인치 대화면, 1300만 화소

LG Q 51 美 국방부 표준규격 통과 7.1채널 'DTS:X' 입체음향 기능 탑재

LG전자가 출고가 31만9000원의 실속형 스마트폰 'LG Q51'을 26일 출시하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과 고객들을 사로잡는다.

LG Q51은 6.5인치 크기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전면 카메라 영역을 물방울 모양으로 디자인해 물입감을 높였다.

LG전자는 실속형임에도 전면에 13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 후면에는 각각 13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다양한 화각을 촬영할 수 있어 인물과 배경에 맞는 사진들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

LG Q51은 주로 프리미엄 제품군에만 적용되던 최대 7.1채널 'DTS:X' 입

체음향 기능을 탑재했다. 또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 이어폰 없이도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인 '밀리터리 스펙'도 통과해 내구성도 강화됐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저온(포장·비포장상태), 습도, 고온(포장·비포장상태), 진도, 분진, 충격(열충격) 등을 테스트한다.

또한 LG Q51은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LG 페이를 탑재,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단한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색상은 백색이지만 푸른빛이 도는 '프로즌 화이트', 검은색이지만 회색빛을 가미한 '문라이트 티탄' 등 2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5G 원격제어 기업 쿠팡과 투자협약

“무인운전·드론 등 5G B2B 서비스 선점”

선제적 투자로 원격제어 분야 확대
쿠팡 2023년 매출 300억 ↑ 기대

LG유플러스는 쿠팡과 5G 원격제어 핵심 기술인 '초저지연 영상 전송 솔루션' 상용화를 위한 지분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분 투자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어니스트벤처스, 동유기술투자 등 3개 투자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투자사들이 확보한 쿠팡의 지분율은 28%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기반의 초저지연 영상 전송 기술을 활용해 ▲ 부산항 크레인 원격제어 ▲ 두산인프라코어와 원격 굴착기 제어 ▲ LG전자 물류로봇 작업환경 감지 ▲ 한양대와 5G 자율주행차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 등 10여건의 원격조종 실증을 진행했다.

쿠팡이 보유한 초저지연 영상 전



LG유플러스 이상연 상무(왼쪽부터), LG유플러스 조원석 전무, 쿠팡 이상훈 대표,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김재완 대표, 어니스트벤처스 오규희 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송 기술은 원격지에서 전송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5G 원격제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솔루션이다.

올해는 5G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선제적 투자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쿠팡의 기술을 활용해 5G 기반의 원격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장비 무인 운전, 드론, 자동차, 로봇 제어 등 5G B2B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 상용화 개발과 양산을 통해 오는 2023년에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솔그룹, 전 계열사에 RPA 도입... 단순업무 최대 97% 감소

(로봇자동화)

스마트 근무환경 구축 본격화

한솔그룹이 전 계열사에 업무처리 로봇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서 일부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RPA를 도입한 결과 단순업무 처리시간이 52~97%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RPA는 단순 반복업무 등을 로봇에게 학습시켜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이다.

한솔그룹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룹은 전사적으로 RPA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에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테크닉스에 RPA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한솔제지의 경우 자금, 구매, 회계 등 46가지 업무에 우선 적용해 운영한 결과 기존에 소요되던 업무시간 대비

평균 52%의 시간 단축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연간 192시간이 걸리던 온라인 시장 가격 모니터링 업무에 RPA를 적용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100% 자동화했다.

특히 한솔테크닉스의 경우 단순 주문처리 업무에 도입해 연간 924시간이 걸리던 업무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 약 97%의 절감 효과를 봤다.

/김승호 기자 bada@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헝가리 외교통상부에서 미차르 레벤테 외교통상부 차관(오른쪽 두번째) 등과 양극박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한 투자 미팅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롯데알미늄, 헝가리 공장구축에 1100억 투자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 내년 완공

롯데알미늄이 헝가리에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 투자에 나선다.

롯데알미늄은 헝가리 터타바너 산업단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차에 사용하는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 공장을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롯데알미늄은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으로 알루미늄박 및 약·식품 포장재, CAN·PET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그룹의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2차전지용 양극박 등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양극박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이다. 양극박은 알루미늄 호일 형태

로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자를 모아서 방전시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롯데알미늄 측은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헝가리 터타바너 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는 "전기자동차산업의 요충지인 헝가리에 새로운 공장을 세워 유럽의 급성장하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품질, 고효율의 안정적인 양극박을 생산해 배터리사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